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6-13 윤익빌딩 9층 전화 : 070-8610-3520, 3530 팩스 : 02-552-4840 이메일 : bwc@koreabio.org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www.bwckorea.or.kr



미국, 바이오실드 프로젝트에서 6억 달러 이상의 예산 이관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12월 승인한 지출 계획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책의 마련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부터 6억 달러 이상을 다른 목적을 위해 이관하였다.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르면 바이오실드 프로젝트(Bioshield Project)의 별도적립금에서 약 6억 900만 달러가 이번 회계연도에 이관되었다. 의회 의원들은 3억 400만 달러를 보건부(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로 이관시켰고, 보건부의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내 계정으로 3억 500만 달러를 이관해 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라 비상 대책을 확보하고 비축하기 위한 바이오실드 적립금은 2013년 회계연도까지 약 24억 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보건부로 남은 자금을 이전하려는 정부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보건부에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전체 책임을 주고 있다.

2004년 시작된 바이오실드 프로젝트는 대량살상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10년간 56억 달러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가 생물테러 및 기타 대량 살상무기 대응물질인 백신, 의약품 등을 개발하고 구매하겠다는 확신을 바이오기업 및 제약기업에 보이면서 관련 업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미 해군이 2001년 생물무기 병원체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탄저균 백신을 생산하려던 8억 7,750만 달러 규모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2006년 취소되고, 2007년 방사선 노출관련 의약품 생산하려던 움직임도 중단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미 국가전략비축물(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을 위해 약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축물을 구매한 것이다.

바이오실드 프로젝트에 관한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회계연도 동안 의회 의원은 총 2,500만 달러를 없애고, 2009년에는 4억 1,200만 달러를 선진연구 개발과 팬데믹 인플루엔자 준비 및 대응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젝트로 이전했다.

적립금에서 돈을 이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회계연도 2010년 예산 요청에서 처음 구체화되었다.

미국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방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의 Randall Larsen 이사는 “H1N1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과 기타 국가안보와 무관한 문제를 위해 바이오실드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미국을 준비가 덜 된 국가로 만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의 Joseph Lieberman 의장은 “NIAID와 BARDA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실드 예산을 삭감시키기 보다는 바이오실드, NIAID, BARDA에 전액을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건부의 예산 이전

피츠버그 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의 생물보안센터(Center for Biosecurity)의 선임연구원인 Brad Smith와 미국과학진흥협회의 Patrick Clemins 는 이 프로젝트의 적립금을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에서 보건부(Health and Human Services)로 책임을 이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을 찬성했다.

Brad Smith는 “국토안보부는 탄저균과 같은 물질이 미국에 위협이 되며 바이오실드 프로젝트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보건부는 국토안

보부가 파악한 위협에 대해 신약을 포함한 대책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약만을 발표할 뿐이다. 이제 보건부는 전체 계획에 따라 적립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계약별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전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서류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기타 바이오디펜스를 위한 지출

미 국방부(DoD : Department of Defense)의 생화학테러 방어 프로그램은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해 12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11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이다.

미군은 바이오디펜스(Biodefense) 장비 확보를 위해 3,400만 달러를 받았고, 보건부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국가 전략비축물(Strategic National Stockpile) 프로그램에 대해 약 5억 9,600만 달러를 받았다.

또한, 보건부는 질병관리연구와 훈련을 수행하는데 약 64억 달러를 받았다고 법안은 밝히고 있다.

의회 합의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도시의료대응시스템(Metropolitan Medical Response System)은 4,1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 시스템은 위험물질로 인한 대량피해 사고에 조직적인 대응을 위하여 비상사태 관리와 보건시스템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합의는 하원이 제안한 약 7,950만 달러 대신 상원이 국토안보부의 바이오워치(Biowatch)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한 8,950만 달러를 포함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도시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공기 중에 병원체가 확산될 경우 이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0. 1. 8)

미국 Elusys Therapeutics사, 새로운 탄저병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

미국 Elusys Therapeutics사는 미 보건부와 초기 노출 후 탄저균 치료제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10년 1월 3일 발표했다.

동사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계약 첫 해 1,68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계약금액은 5년간 1억 4,3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번 계약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테스트와 더불어 생산과 기타 활동을 위한 준비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만약 동사의 첫 치료제인 Anthim이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을 경우 미 국가전략비축물(Strategic National Stockpile)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PR Newswire Monday : 2010. 1. 4)

미국 PharmAthene사, 탄저 백신 개발비 7,840만 달러 투자 유치

2010년 2월 23일에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바이오기업인 파마신(PharmAthene)사는 차세대 탄저 백신인 스파백스(SparVax)에 대한 연구로 보건부 기금 7,84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사는 BARDA(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와의 현재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에 적합할 경우 추가적인 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사의 회장이자 CEO인 David Wright는 “미국이 안전성, 편리함, 비용대비 효과의 개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현대식 백신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탄저 백신을 개발하고 비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러 정부 기관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다” 고 밝혔다.

과거 임상시험에 따르면 이번 실험 백신을 56일에 걸쳐 3회 투여하면 탄저병에 대한 면역성이 충분히 발생했는데, 이 결과는 면역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 FDA가 허가한 유일한 백신이 18개월에 걸쳐 5회

투여를 필요로 한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갱신은 이번 2010년 2월 2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갱신된 계약은 “고정비를 기반으로 비용 환급”에 추가되는 1,700만 달러와 더불어 “기준 기간(base period)” 동안 6,100만 달러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동사는 스파백스 연구에 대해 연방기금 추가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David Wright는 “이번에 발표된 추가 기금과 더불어 향후 기금을 받게 된다면, 바이오실드 프로젝트에서 구매 계약을 고려할 수준까지 스파백스를 발전 시키기에 충분할 것” 이라고 밝혔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0. 2. 24)

미 정부, 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에 4,000만 달러 예산 지원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질병들을 연구하려는 미국 캔자스의 연방연구소인 국립생명농업방어시설(NBAF : National Bio and Agro-Defense Facility)은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 제안에 따라 4,000만 달러를 받게 될 전망이다.

NBAF는 뉴욕 플럼 아일랜드에 위치한 동물 질병 연구소를 대신하여 구제역과 기타 잠재적 위협이 되는 동·식물의 질병을 연구할 것이라 전했는데, 주로

설계와 운영 계획을 명목으로 3,200만 달러를 예산으로 받았다.

Mark Parkinson 캔자스 주지사는 이 시설이 지역 경제에 혜택을 안겨주며 국가 안보 이익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Associated Press/KOAM TV : 2010. 2. 2)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 새로운 천연두 백신 임상시험 예정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Saint Louis University) 과학자들은 미국인들을 생물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 중인 천연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볼 계획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기금을 지원받는 이번 연구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백신개발센터(Center for Vaccine Development)가 주도하는 것으로, 현재 최대 240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Bavarian Nordic이 개발하여 연구 중인 천연두 백신 임바문(Imvamune)에 대해 2가지 조제용 물질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 백신은 액체와 분말 상태로 보관되는데, 주사약으로 투여하기 전 분말은 액체 혼합된다. 이번 연구로 피부와 근육 사이에 투여할 경우와 피부 층 사이에 투여할 경우 인체의 면역 반응을 비교할 것이다.

세인트루이스 의과대학에서 전염병을 담당하는 교수이자 수석 연구원인 Sharon Frey 박사는 “백신을 피부 내로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한 피하로 투여하는 것만큼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면 같은 양의 백신으로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아이오와 대학, 메릴랜드 대학, 에모리 대학, 시애틀의 집단건강조합(Group Health Cooperative)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전염성이 매우 높고 치명적일 수 있는 천연두는 1980년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비밀리에 생물테러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St. Louis Business Journal : 2010. 2. 1)

아일랜드 국회의원, 생물무기금지법 강화 요구

아일랜드의 한 국회의원이 생물무기에 대한 법적 금지에 아일랜드 영공을 통하여 이러한 군비가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Irish Times가 보도했다.

생물무기법안(Biological Weapons Bill)에 따라 아일랜드 자체는 탄저병, 천연두 등 질병 물질을 확산시키는 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확보, 운송, 사용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민, 아일랜드 군대와 더불어 아일랜드의 모든 해상 선박과 항공기에 이 법안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노동당의 Michael Higgins 외교 문제 대변인은 “사실상 주요 분쟁의 절반에서 생물무

기가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시급하며, 이와 관련한 작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새년 공항을 다루는 법안을 제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Brian Cowen 총리는 Higgins 대변인의 제안을 Micheal Martin 외무장관에게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현재 법안의 범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과 논의하거나 발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가장 좋은 상황” 이라고 말했다.

(Irish Times : 2010. 2. 12)

파키스탄 정부,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지지

파키스탄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of Pakistan)은 파키스탄의 연방 정부는 파키스탄에서 생물무기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잠정적 지지를 했다고 2010년 1월 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의 요건이 효력을 갖게 하고 생물무기나 관련 물질, 장비, 기술의 개발, 생산, 운송, 보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무기금지협약 법안은 분쟁 상황에서 생물무기의 사용을 가능케 할 운송수단을 금지할 것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25년의 징역형과 최대 11만 8,000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1972년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74년에 비준했다.

(Associated Press of Pakistan : 2010. 1. 6)

덴마크 기업, 새로운 생물안보 규정 직면

코펜하겐 포스트(Copenhagen Post)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의 기업과 기타 단체는 생물무기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취급하려면 5월 1일까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이 “생물학적 이중 용도 성분”을 취급하려면 덴마크의 생물보안대응센터(CBB : Center for Biosecurity and Biopreparedness)를 통해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승인을 2010년 5월 1일까지 받지 않는 기업의 담당자는 2년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Business.dk와의 인터뷰에서 CBB의 센터장인 John-Erik Hansen은 잠재적 생물무기 재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감시하는 것을 지금까지

는 제한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며, “국내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느슨하다고 볼 수 있으며, 60~500여개의 기업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실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CBB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방문했던 시설의 절반에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Erik Hansen 센터장은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를 숙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받게 될 처벌 때문이 아니라 어느 덴마크 회사나 연구기관도 생물무기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전달하는데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The Copenhagen Post : 2010. 2. 4)

미국, 생물학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대책 배포 모델 추진

AF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체국 등 정부 기관에게 생물학적 공격 발생시 의료대책을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은 “이번 정책을 통해 질병을 완화하고 사망을 예방하며, 주요 인프라를 유지하고, 미국 영토 state, local territorial, tribal 단위의 정부의료대책 배포 능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우체국이 미 전역의 지역사회 거주자들에게 “자가 투여”를 위한 의료대책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대규모 생물학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대책 배포 모델을 추진할 것이다.

미 보건부 Kathleen Sebelius 장관과 국토안보부 Janet Napolitano 장관은 탄저균이 주요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도시들이 대규모 생물학적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배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우편제도와 협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부 기관들은 180일 내에 주와 지역에 있는 보건 및 1차 대응 기관들과 상의하여 의료지원 배포 모델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0. 1. 4)

미국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리즘 방지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미국 의회가 의뢰한 전문가 패널은 미국이 생물테러의 위협을 맞설 효과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어 거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2005년 비상대응훈련 중 미국 뉴저지방위군은 모의 생물작용제를 제거하기 위해 살포를 실시하고 있다.

미 의회 산하 대량살상무기확산 및 테러리즘방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을 이용한 공격을 신속하게 인식, 대응, 복구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능력의 부재가 생물테러 방어의 중대한 실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19페이지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생물학적 공격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 역량이 부족하며, 국가적 역량은 당국과 대중에게 정보 제공, 의료 대책의 적절한 공급과 빠른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환자 격리 및 치료 시스템, 탄저균 등의 물질에 대한 환경정화 시스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생물학적 공격이 대량살상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는 미국의 역량을 높일 것을 요구한 동 위원회의 2008년 요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조치를 두고 F 평점을 주었다.

또한 위원회는 가장 위험한 질병물질을 취급하는 높은 수준의 밀폐 연구소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에 있어 정부에 D+를 주었으며, 위험한 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 결과는 A를 주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보편적인 준수를 위해 새로운 실천 계획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는 B+를 주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의 정서(protocol)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적으로 선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이중적 사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협약이행을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물무기에 대한 미국 정책은 검증의정서 원안에 대한 반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2011년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에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미국은 연구소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한 리버만-콜린스 법안 통과 등 생물테러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국내에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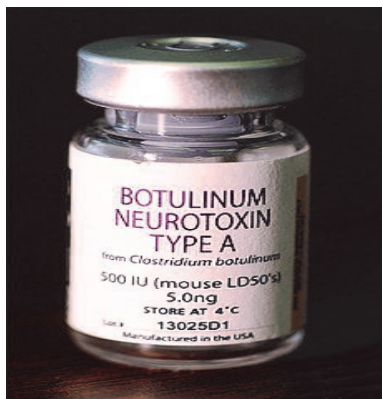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이번 제안사항에서 미 국무부가 A를 받으려면 생물무기금지에 대한 국제사회 준수를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 Nick Shapiro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생물테러 등 공중위생 위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0. 1. 26)

보톡스 성분인 보툴리눔 독소의 생물테러 위협 가능성

미국 반테러 전문가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널리 알려진 미용 치료제에서 사용되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테러 조직이 생물무기로 사용할 수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과 같은 유리병의 보톡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006년 정부 관리들은 각 보톡스 박스에서 소량으로 발견되는 보툴리눔 독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불법 시설이 체첸 공화국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보툴리눔 독소를 가장 심각한 잠재적 생물무기 중 하나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명을 사망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신경계 물질을 얻으려면 수백 개의 보톡스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짜 보톡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문의 체첸 시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관리들과 테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며 유

사한 공장이 수십 개 더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시설이 발견된 적은 없다.

미용 치료제에 대한 암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실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암시장 거래는 판매자가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테러조직 알 카에다나 보툴리눔 독소를 입수하려고 하며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단체는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약물 대용품 거래하고 있다.

생물테러 전문가인 Kenneth Coleman은 “이는 테러리스트에게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익용 사업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2009년 한 실험에서 숙련된 기술자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가 있다면 수 천명을 죽이기에 충분한 1g의 독성물질 원액을 생산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Kenneth Coleman은 “독성물질을 생물무기로 개발하려고 했던 일본 극단주의 단체 옴진리교와 알카에다의 예전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균주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고, 기존 생산자에게 구입할 수도 있으며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The Washington Post : 2010. 1. 25)

이스라엘, 주요 생물테러 대비 훈련 실시

이스라엘은 생물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텔아비브에서 수행했다고 Ynetnews가 밝혔다.



이스라엘 생물테러 대비 훈련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이 아동 피해자를 나타내는 인형을 치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의료대(Defense Forces Medical Corps), 보건부(Health Ministry), 병원, 보건소에서 발진, 발열, 구강 내 병변을 경험한 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물테러에 대한 가장 큰 시뮬레이션이라고 알려진 이틀간에 걸친 이번 훈련에서는 공군 사령관은 사상 당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군인에 대한 여러 오염 사례를 다루었다.

최고의료책임자인 Nachman Esh는 “생물학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높이려고 하며, 우리는 수 많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훈련은 꾸준한 연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여러 시설에 있는 의료진은 피해자 역할을 자원한 이들에게 치료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천연두에 감염되었음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실 분석용 샘플을 취합했으며, 의료 부대는 특정 지역을 “살균 구역”으로 분류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기획에 참여한 고위 관리자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적합한 물질을 구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이러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건물에서 액체 용기를 던져 수십 명에게 상해를 입힌 홍콩에서의 염산테러를 모방한 자를 이스라엘에서는 가능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주지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정기적인 계절성 질환과 특별 치료가 필요한 생물학적 공격의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비결이다”라고 덧붙였다.

(Jerusalem Post Breaking News from Israel : 2010.

1. 13)